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및 흡연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의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은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인에게는 또 다른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기의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은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발달 및 행동상의 문제가 더불어 발생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Johnston, O'Mally, & Backman, 1993).

청소년기는 인생의 격동기로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갈등 속에서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충동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주위환경과 심한 마찰을 보일 뿐 아니라 때로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의욕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부적응 양상을 보여 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직 미성숙에서 오는 의존성과 호기심, 도전심과 친구들의 권유나 동질성의 유지를 위해서 흡연이나 알코올 등 기타 약물에 접하게 된다. 범세계적으로 청소년기의 흡연인구는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흡연행동은 약물남용으로 이어지고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막대한 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범죄간의 관련성은 국내외의 많은 문헌(Kim, 1998; Kaplan & Sadock, 1998)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왔으며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은 특히 불법가택 침입강도, 절도, 위조, 방화와 같은 강력 중범죄 및 재산범죄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Kim, Min, & Kim, 1996). 일부 연구자(Kosviner, Hawks & Webb, 1973)들은 청소년들이 흡연·음주 및 약물로 노출되어도 실제로 비행이나 사회정신적 장애와는 거의 상관없이 없고 대체로 호기심과 실험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Ministry of Culture & Sports, 1996; Mailloux, 1997)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1994) 보고에 의하면 매년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조폭화, 총격화, 연소화의 경향을 보이는데는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등을 포함한 약물남용이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청소년이 약물남용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접하게되는 약물(gateway drug)로 이에 대한 관련변인 규명과 비행행동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매우 부족하였던 실정이다. 또한

* 본 연구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원기금 수행에 의한 연구 중 일부분임

**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투고일 2001년 4월 2일 심사완료일 2001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1년 7월 24일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행동 관련변인으로 흡연이나 음주 등 약물사용 외에 청소년의 역기능적인 가정 역동적 환경(Kim, Min & Kim, 1992; Kim et al., 1996; Cohen & Rice, 1997)이나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 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등과 같은 부적응적 성격적 특성(Kim et al., 1992; Griffin, Botvin, Scherier, Diaz & Miller, 2000)이 자주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흡연정도의 차이 및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을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비행행동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다양한 약물 유형 중 시발점이 되는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흡연 정도의 차이와 관련요인(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성 등)을 분석하고 청소년 흡연과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흡연 관련변인(가정 역동적 환경·성격적 특성), 흡연 및 비행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흡연을, 흡연동기 및 금연시도간의 차이를 규명한다.
- 3) 청소년 흡연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요인의 경로 및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가정 역동적 환경

- 이론적 정의 : 가정 역동적 환경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원간의 화합도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뜻한다(Le Blanc, 1992; Kim et al., 1992).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가정 역동적 환경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2) 성격특성

① 우울 성향

- 이론적 정의 : 우울 성향이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침체된 기분,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상실, 정신운동성 지체 또는 초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절망감,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죄책감, 집중장애, 생리적으로는 수면장애(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피로감, 식욕감퇴, 변비, 성욕감퇴를 호소하고 심한 경우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성향을 의미한다(APA, 199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성향 I 은 Zung(1965)의 자가평정 우울척도로 우울 성향 II 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우울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② 반사회적 성격양상

- 이론적 정의 : 반사회적 성격양상이란 주로 15세 전에 시작되며 책임감, 연장자에 대한 복종심, 타인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규범, 가치에 대한 신뢰감, 준법정신의 결여, 이자극성, 공격성, 충동성과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으며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 성향을 의미한다(APA, 199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반사회적 성격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③ 사회성 성향

- 이론적 정의 : 사회성 성향은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며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련의 사고 및 행동특성을 말한다(Crowne & Marlowe, 196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사회성향 척도에 의해 측정한 점수이다.

④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 이론적 정의 :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성향을 의미한다(Kaplan, Sadock & Grebb, 199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정신신체 증상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신신체 증상 호소성향 I과 불안을 주 요인으로 하는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로 분류하였으며,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AFT)는 Langner (1962)의 정신과적 증상 선별척도에서 정신신체증상과 관련된 문항을 발췌하고,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 (ANX)는 Zung(1971)의 자가평정 불안척도에서 정신신체증상과 연관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⑤ 욕구충족/욕구좌절

- 이론적 정의 : 인간의 욕구체제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단계까지로 체계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가 동기화된 행동과 노력에 의해 채워진 상태를 욕구충족 상태라고 하는 반면에 욕구충족을 위한 이러한 목표지향적 행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욕구좌절 상태도 정의한다(Maslow, 197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중 욕구충족/좌절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3) 비행행동

- 이론적 정의 : 비행행동은 빛나간 행동 즉 탈선행동으로 이는 행동장애에 대한 사회학적, 법적 용어이며, 무단결석, 가출, 음주 및 흡연 등과 같이 행위자의 연령때문에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상태
- 성 비행과, 경범죄로부터 강도,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모든 범법행위를 뜻하는 비사태성 비행으로 나뉜다(Moore & Arthur, 1989).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중 비행행동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II. 문헌 고찰

비행 및 범법행동과 흡연·음주 및 약물사용간의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Anglin & Speckart, 1988).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범법행동과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여기에서의 중요한 측면은 폭력범죄가 알코올 및 다른 약물남용과 어느 정도 관계

가 있는나는 것이다. Anglin과 Speckart(1988)는 흡연·음주를 포함한 약물남용자가 폭력적인 범법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 연구(Dawkins, 1997)에서도 조기의 음주나 흡연은 불법약물복용(예, 마리화나, 코카인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폭력범이나 재산범과 같은 범법행동에의 가담으로 귀결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은 공통적인 선행요인 - 반사회적 행동, 학업부진, 결손 가정, 비행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와의 교제나 반항심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요인은 일군의 문제행동의 기초가 되며 다양한 행동적 징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 관찰자들이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은 서로 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Elliott, Huizinga & Menard, 1989),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약물남용자와 비행자는 명백히 다른 집단임을 주장하고 있다(White, Pandina & LaGrange, 1987). 이러한 주제를 명료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흡연을 포함한 약물사용과 비행 모두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외의 연구를 보면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의 덕택으로 지난 10년 간에 걸쳐 청소년 약물사용인구는 다소 감소하였으나(Johnson, O'Mally & Bachman, 1993), 청소년의 흡연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Smart, Adlaf & Walsh, 1991).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며(Kim, 1998), 약물남용이 비행행동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보고(Elliott, Huizinga & Menard, 1989; Anglin & Speckart, 1988)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약물사용의 한 유형인 흡연 또한 비행행동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여러 연구문헌이 약물남용과 비행간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실히 밝혀 주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연관관계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첫째는 약물남용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어떤 경로로 비행행동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중북영향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며(White, 1992) 둘째는 약물남용과 비행간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로 즉 약물남용과 비행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요인(예, 또래관계)의 중북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약물남용행동에만 관련된 요인(예, 약물사용신념, 약물구입의 용이성,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등)도 있다는 것이다(White, 1992; Dembo,

Williams, Wothke, Schmeidler, Getreu, Berry & Wish, 1992). 이러한 약물남용과 비행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흡연 또한 약물남용의 한 유형이라 볼 때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에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또한 흡연이나 약물남용과 비행간의 상관관계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 예로 담배·알코올이나 약물에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한 연령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처음 시작한 연령이 이후의 흡연이나 음주 및 약물 복용정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Barnes와 Welte(1986)는 후기 청소년기의 알코올 소비는 첫 음주 연령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조기의 약물사용은 성인이 된 이후의 약물남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청소년기 흡연·음주 및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한 연구(Kim, 1998; Kim et al., 1992)에서는 일관되게 또래나 부모의 약물사용과 약물사용에 대한 또래나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약물 사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과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관계는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나 태도 등이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2). 이러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흡연·음주 및 약물사용 행동에 도화선 역할을 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부모양육방식의 부적당성, 둘째, 자녀통제수단으로 언어적 또는 신체적 처벌방법 사용,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행동을 조장시키는 경우 등이다. 그 외 여러 학자들이(Oetting et al., 1998; Griffin et al., 2000) 부모 양육방식이 자녀의 흡연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훈육방식의 부적당성이 약물사용 행동을 포함한 비행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훈육방식 태도에 따라 자녀의 약물사용을 포함한 문제행동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 흡연 등 약물사용을 포함한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인 훈육방식으로는 훈육방식의 불공평성, 훈육방식의 모순성, 언어적 및 신체적 처벌 등이다.

훈육방식 외에 가정의 심리적 요인으로 흔히 문제가 된다고 거론되는 것으로는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족원간 화합도 등을 들 수 있다. Johnson과 Lobitz(1974)등은 부부간 불화관계나 부적응 관계가 자녀의 흡연 등 약물남용을 포함한 부적응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Slocum과 Stone

(1963)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나 애정결핍이 청소년 약물사용을 포함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Slocum과 Stone(1963)등은 또한 가족원간 비협동성 및 부조화 관계가 청소년자녀의 약물사용을 포함한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함보다 가족원간의 불화적 관계성이 청소년 비행에 더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약물사용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부친 혼육방식, 모친혼육방식, 부모-자녀관계, 가정안정도,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등의 가정 내 심리적 풍토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흡연·음주를 포함한 청소년 약물사용 행동의 원인설명에 청소년 자신들의 성격특성 또한 중요한 몫을 한다. 특징적으로 청소년기는 일생 중 정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시기로 간주된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고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키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껴 정서적으로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Kim, 1998). 더욱이 청소년들은 우울 감정이 은폐되어 있으며 욕구좌절시 청소년의 정서상태가 행동반응(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을 포함한 문제 행동 등)으로 많이 표출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청소년의 우울 정서 상태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부추기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량집단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에의 개입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Tannenbaum, 1971).

청소년기의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 등과 관련 있는 부적응적 성격특성 중 하나로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을 들 수 있으며 Sontag(1950)와 Kim(1998)등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수동적이든 공격적이든 그 자체가 정신신체증상으로 발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동적인 양상으로 발현될 때 나타나는 행동은 수줍고 순응적이며 퇴행되고 강박적인 행동들이고, 반면에 공격적 양상은 욕구충족을 추구하다가 좌절되면 적대감정을 표출하는 식으로 공격행동을 나타낸다(Kim, 1998). 이런 점은 은폐된 우울 성향을 가진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유사한 면이 있어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회성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음주 및 비행행동 관련변수로 언급되어 왔다(Quay, 1986). Quay(1986)는 문제행동을 비사회화 문제행동과 사회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바 있는데 여기서 비사회화 문제행동이란 정신병질적 인격을 가진 성

인형 범법행동의 특징적 소견인 반면 사회화 문제행동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집단 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로 청소년 갱 집단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Kim, 1998; Kim et al., 1996) 청소년의 흡연·음주 및 약물사용은 또래의 압력이나 또래집단의 규범에 대한 맹목적 순종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의미의 사회성향은 청소년 흡연·음주 및 문제행동에 중요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욕구좌절이 흡연·음주 등을 포함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원인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자주 강조되어 왔고(Kim, 1998; Kim et al., 1996), 특히 가족원간의 물화나 부모-자녀관계의 갈등관계에서 파생되는 욕구좌절은 특별히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 자녀들은 합법적인 가족집단에서 가정에 대한 안정감, 행복감 및 만족감 같은 욕구충족 획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욕구좌절에 대한 대리만족을 약물남용과 같은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그 외에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과 강하게 관련된 요인으로는 문제행동에 대한 무감각이나 감각 추구행동과 같은 이탈행동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Webb, Baer, McLaughlin, McKelvey & Caid, 1991b) Webb등(1991b)은 이탈행동이나 감각추구 행동이 흡연·음주 및 약물사용이 강력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실태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1,192명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소중인 비행·범죄 청소년 843명을 대상자의 익명성과 윤리적 측면을 전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4개 학급학생 1,192명을 표집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비행·범죄청소년의 경우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개 소년원과 2개 분류심사원 총 8개의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재원중인 843명의 비행·범죄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대상자 2,035(비행청소년:843명, 학생청소년:1,192명)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87명을 제외한 1,9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5.9%(비행군:93.0%, 학생군:97.6%)이었다.

3. 측정도구

1) 가정 역동적 환경 척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가정 역동적 환경 척도를 발제·이용하였다. 가정 역동적 환경척도에는 부친의 양육방식(7문항), 모친의 양육방식(7문항), 가정안정도(14문항), 부모-자녀관계(12문항), 가족원의 가장만족도(4문항), 가족원간의 관계(3문항) 및 모친의 사회활동(3문항) 등 7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은 부정적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6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8 ~ 0.89 이었다.

2) 성격 척도

성격 척도에서 우울 성향 I (20문항)은 Zung (1965)의 자가평정우울척도,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I (12문항)은 Langner(1962)의 정신과적 증상 선별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우울 성향 II (26문항), 반사회적 성향(34문항), 사회성(11문항),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II (10문항), 욕구좌절 정도(9문항)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Kim & Kim, 2000) 중 성격 척도를 발제·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3 ~ 0.86 이었다.

3) 흡연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중 흡연 척도 5개 문항(흡연경험 유무, 일일 흡연량, 총 흡연기간, 흡연동기, 단연 시도 등)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 이었다.

4) 비행행동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Kim & Kim, 2000)중 비행행동 척도 16개 문항(오토바이 폭주, 타인 물건 파괴, 상습적 과음, 습관성 약물 복용, 스트레스기술, 담배 및 약물 복용, 정학, 퇴학 경험, 무단결석, 가출, 패싸움, 거짓말, 절도 등)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3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대단위 실태조사 연구로써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기록과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연구보조원 및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원 석사 과정생 2인이 함께 동행하여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교육 및 설문지 작성 중 의문나는 점을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학기 말교사가 끝난 기간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조사 시간을 배정 받았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의 원인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비행행동을 내생변수(종속변수), 흡연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정역동적 환경(부친의 양육방식, 모친의 양육방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친의 사회활동) 및 성격특성(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 성향 I 과 II, 사회성,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 과 II, 욕구충족/좌절정도)을 외생변수(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자료처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원들이 면담, 설문지법 및 기타 재원생활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 등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 후 IBM PC 컴퓨터를 이용하여 SAS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관련변인간 차이검정을 위해서는 Chi-square, t 검정, 청소년 비행행동화 경로 및 비행행동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로분석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로 볼 때 학생청소년 1,150명중에서 남성은 597명(52%), 여성은 553명(48%)이었으며 비행청소년 781명중에서는 남성이 709명(91%), 여성이 72명(9%)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학생청소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비행청소년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직 증가도 의미있게 나타났다($\chi^2=301.5$, $df=6$, $p=0.000$). 교육수준에서는 비행청소년에서 재학생이나 졸업생보다 중퇴한 경우가 의미있게 많았다($\chi^2=1,411.1$, $df=7$, $p=0.000$). 청소년들의 종교면에서 볼 때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들보다 기독교, 불교 및 천주교 등 종교를 많이 믿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학생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보다 많으며($\chi^2=87.9$, $df=5$, $p=0.000$) 비행 및 학생 모두에서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1 참조).

2.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가정역동적 환경, 성격, 흡연 및 비행행동 비교

각 연구변수들에 대하여 비행청소년군과 학생청소년군간의 평균 차이는 t 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Table 2-1, 2-2 & 2-3). Table 2-1, 2-2와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행청소년군과 학생청소년군간의 모든 연구변수에서 비행청소년군이 학생청소년군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즉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역동적 환경에서 비행청소년의 가정역동적 환경이 학생청소년의 가정역동적 환경 보다 역기능적이었다(부친의 양육방식, 학생: 16.77 ± 7.21 , 비행: 17.85 ± 6.65 , $p=.0003$, 모친의 양육방식, 학생: 15.16 ± 5.63 , 비행: 16.32 ± 5.59 , $p=.0000$, 가정안정도, 학생: 29.18 ± 10.52 , 비행: 32.88 ± 10.97 , $p=.0000$, 부모-자녀 관계, 학생: 25.14 ± 7.13 , 비행: 28.40 ± 8.49 , $p=.0001$,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학생: 8.44 ± 3.99 , 비행: 9.17 ± 4.19 , $p=.0001$, 가족원간의 관계, 학생: 7.89 ± 2.24 , 비행: 8.73 ± 2.57 , $p=.0001$, 모친의 사회활동, 학생: 6.71 ± 2.66 , 비행: 7.68 ± 2.79 , $p=.0000$)(Table 2-1 참조).

다음으로 비행 및 학생청소년들의 성격 특성들, 즉 정신신체호소성향(I, II), 반사회적 성격양상, 사회성향, 우울 성향(I, II) 및 욕구충족/좌절정도에 관한 성향을

〈Table 1〉 Chi square test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between delinquent and student
() = %

	Total	Student	Delinquent	χ^2	d.f.	p value
Sex						
Male	1.306	597(46.7)	709(54.3)	321.0	1	0.000
Female	625	553(88.5)	72(11.5)			
Total	1.931	1.150(59.5)	781(40.5)			
Age						
12	77	74(96.1)	3(3.9)			
13	245	212(86.5)	33(13.5)			
14	236	192(80.7)	46(19.3)			
15	345	227(65.8)	118(34.2)	301.5	6	0.000
16	401	198(49.4)	203(50.6)			
17	369	179(48.5)	190(51.5)			
18	273	82(30.0)	191(70.0)			
Total	1.948	1.164(59.8)	784(40.2)			
Education						
Uneducated	9	0(0)	9(100)			
Elementary	78	0(0)	78(100)			
Middle schooling	667	586(87.9)	81(12.1)			
Out of middle	282	0(0)	282(100)			
Graduate middle	99	0(0)	99(100)	1.411.1	7	0.000
High schooling	627	578(92.3)	49(7.7)			
Out of high	122	0(0)	122(100)			
Graduate high	15	0(0)	15(100)			
Total	1.948	1.164(59.8)	784(40.2)			
Religion						
Christianity	848	457(53.9)	391(46.1)			
Catholic	179	91(50.8)	88(49.2)			
Buddhism	340	171(50.3)	169(49.7)			
Confucianism	5	3(60.0)	2(40.0)	87.9	5	0.000
Cheondoism	4	1(25.0)	3(75.0)			
No religion	479	367(76.6)	112(23.4)			
Total	1.855	1.090(58.8)	765(41.2)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보다 반사회적 성격양상(학생: 24.30 ± 8.33 ; 비행: 29.24 ± 8.82 , $p = .0000$),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I : 학생: 21.75 ± 4.45 ; 비행: 23.44 ± 5.02 , $p = .0001$, II : 학생: 21.74 ± 8.65 ; 비행: 26.42 ± 8.79 , $p = .0000$), 사회성향(학생: 33.89 ± 8.44 ; 비행: 35.51 ± 8.95 , $p = .0000$), 우울 성향(I : 학생: 27.94 ± 10.24 ; 비행: 33.20 ± 9.88 , $p = .0000$, II : 학생: 39.18 ± 8.94 ; 비행: 41.20 ± 8.08 , $p = .0001$) 및 욕구충족/좌절정도(학생: 25.20 ± 6.37 ; 비행: 27.10 ± 5.01 , $p = .0001$) 모두에서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Table 2-2 참조).

또한 흡연에 있어서도 비행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였으며(학생: 7.46 ± 7.82 ; 비행: 14.48 ± 8.65 , $p = .0000$), 비행행동면에서도 비행

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보다 월등히 많은 비행행동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생: 23.15 ± 8.49 , 비행: 48.50 ± 13.29 , $p = .0001$)(Table 2-3 참조).

3.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흡연관련 변인 비교

흡연 관련 변수에 대한 비행 청소년군과 학생 청소년군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 보다 흡연율이 높았으며 흡연량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356.1$, $df = 3$, $p = 0.001$). 조사결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48.6%(하루에 한갑이상 흡연 : 14.4%, 하루에 10-20개피 흡연 : 24.5%, 가끔 흡연 : 9.6%)이었으나 이 중 비행청소년의 흡연율은 96%인 반면 학생청소년의 흡연율은 15.7%이었다. 더욱이 비행청소년 중

〈Table 2-1〉 Mean difference test of Family Dynamic Environment between delinquent and student

Variables		N	Mean±SD	t	p
Paternal rearing	Student	1149	16.77 ± 7.21	-3.37	.0008
	Delinquent	775	17.85 ± 6.65		
Maternal rearing	Student	1161	15.16 ± 5.63	-4.49	.0000
	Delinquent	776	16.33 ± 5.59		
Family stability	Student	1164	29.18 ± 10.52	-7.48	.0000
	Delinquent	784	32.88 ± 10.97		
Parent child relationship	Student	1164	25.14 ± 7.13	-5.85	.0001
	Delinquent	782	28.40 ± 8.49		
Satisfaction toward family	Student	1164	8.44 ± 3.99	-3.89	.0001
	Delinquent	784	9.17 ± 4.19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	Student	1164	7.89 ± 2.24	-7.47	.0001
	Delinquent	784	8.73 ± 2.57		
Working mother	Student	1164	6.71 ± 2.66	-7.75	.0000
	Delinquent	784	7.68 ± 2.79		

〈Table 2-2〉 Mean difference test of Personality between delinquent and student

Variables		N	Mean±SD	t	p
Sociability	Student	1161	33.89 ± 8.44	-4.07	.0000
	Delinquent	779	35.51 ± 8.95		
Need satisfaction/frustration	Student	1164	25.20 ± 6.37	-7.33	.0001
	Delinquent	783	27.10 ± 5.01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Student	1164	24.30 ± 8.33	-12.53	.0000
	Delinquent	784	29.21 ± 8.82		
Psychosomatic Sx I	Student	1158	21.75 ± 4.45	-7.60	.0001
	Delinquent	780	23.44 ± 5.02		
Psychosomatic Sx II	Student	1159	21.74 ± 8.65	-11.61	.0000
	Delinquent	781	26.42 ± 8.79		
Depression I	Student	1164	27.94 ± 10.24	-11.25	.0000
	Delinquent	780	33.20 ± 9.88		
Depression II	Student	1164	39.18 ± 8.94	-5.18	.0001
	Delinquent	784	41.20 ± 8.08		

〈Table 2-3〉 Mean difference test of Smoking & Delinquent Behavior between delinquent and student

Variables		N	Mean±SD	t	p
Smoking	Student	160	7.46 ± 7.82	-9.43	.0000
	Delinquent	708	14.48 ± 8.65		
Delinquent behavior	Student	1164	23.15 ± 8.49	-17.30	.0001
	Delinquent	784	48.50 ± 13.29		

33.7%, 학생청소년 중 1.1%가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의 51.3%, 학생청소년 중 6.0%는 하루에 10-20개피, 비행청소년의 11.1%, 학생청소년의 8.6%는 가끔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여 비행청소년이 학생청소년 보다 흡연율이 높을 뿐 아니라 흡연량 또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이유에 있어서도 비행청소년은 또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chi^2=91.6$, $df=3$, $p=0.001$),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χ^2

$=152.2$, $df=3$, $p=0.001$), 니코틴 중독으로($\chi^2=98.2$, $df=3$, $p=0.001$) 흡연하는 반면 학생청소년은 긴장감을 풀기 위해($\chi^2=246.2$, $df=3$, $p=0.001$)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식사 후에 의례적으로 흡연하는 경향이 많았으며($\chi^2=372.4$, $df=3$, $p=0.001$) 금연시도도 학생청소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chi^2=16.6$, $df=4$, $p=0.001$)(Table 3 참조).

〈Table 3〉 Chi square test of smoking variables by group(delinquent/student) () = %

Variables	Total	Delinquent	Student	χ^2	d.f.	p
daily smoking						
more 1pack/day	265	253(95.5)	12(4.5)	2356.1	3	0.001
10-20/day	450	385(85.6)	65(14.4)			
sometimes	176	83(47.2)	93(52.8)			
no smoke	944	30(3.2)	914(96.8)			
Total	1835	751	1084			
tension relieving						
not at all	204	133(38.1)	216(61.9)	246.2	3	0.001
a little	282	267(85.3)	46(14.7)			
mostly	496	224(86.2)	36(13.8)			
very	423	96(85.0)	17(15.0)			
Total	1,035	720	315			
smoking after meal						
not at all	329	96(29.2)	235(70.8)	372.4	3	0.001
a little	185	160(86.5)	25(13.5)			
mostly	220	195(88.6)	25(11.4)			
very	306	273(89.2)	33(10.8)			
Total	1,040	724	316			
for peer relation						
not at all	499	275(55.1)	224(44.9)	91.6	3	0.001
a little	283	224(79.1)	59(20.9)			
mostly	184	160(87.0)	24(13.0)			
very	58	48(82.8)	10(17.2)			
Total	1,024	707	317			
for diversion						
not at all	472	236(50.0)	236(50.0)	152.2	3	0.001
a little	263	214(81.4)	49(18.6)			
mostly	195	173(88.7)	22(11.3)			
very	94	84(89.4)	10(10.6)			
Total	1,024	707	317			
nicotine need						
not at all	749	454(60.6)	295(39.4)	98.2	3	0.001
a little	144	133(92.4)	11(7.6)			
mostly	97	89(91.8)	8(8.3)			
very	35	34(97.1)	1(2.9)			
Total	1,025	710	315			
attempt quitting						
0	67	64(95.5)	3(4.5)	16.6	4	0.002
1-3	130	108(83.1)	22(16.9)			
4-6	223	185(83.0)	38(17.0)			
7-9	184	147(79.9)	37(20.1)			
10	218	162(74.3)	56(25.7)			
Total	822	666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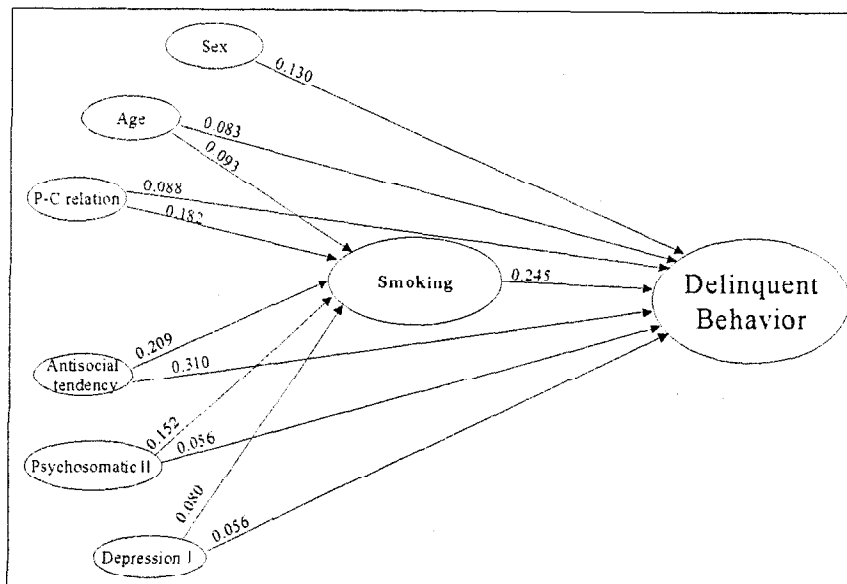
4. 청소년 흡연 및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

본 모형에서 제시한 각 연구변수들간에 어떠한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Table 4> 및 <Figure 1> 은 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흡연에는 청소년의 연령, 부모-자녀 관계, 반사회적 성격양상,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II 및 우울

성향 I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 중 반사회적 성격양상(직접효과: 0.209, 간접효과: 0.00, 총효과: 0.209)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정신신체 증상호소성향 II(직접효과: 0.152, 간접효과: 0.00, 총효과: 0.152), 연령(직접효과: 0.093, 간접효과: 0.00, 총효과: 0.093), 우울 성향 I(직접효과: 0.080, 간접효과: 0.00, 총효과: 0.080), 부모-자녀 관계(직접효과: 0.073, 간접효과: 0.00, 총효과: 0.073)의

<Table 4> Division of direct/indirect effect of smoke on delinquent behavior ()=%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moking	Age	0.133	0.093	0.093(1.00)	- (0.00)
	P-C relation	0.182	0.073	0.073(1.00)	- (0.00)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0.331	0.209	0.209(1.00)	- (0.00)
	Psychosomatic II	0.302	0.152	0.152(1.00)	- (0.00)
	Depression I	0.243	0.080	0.080(1.00)	- (0.00)
Delinquent behavior	Sex		0.130	0.130(1.00)	- (0.00)
	Age	0.418	0.106	0.083(0.78)	0.023(0.22)
	P-C relation	0.341	0.106	0.088(0.83)	0.018(0.17)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0.511	0.361	0.310(0.86)	0.051(0.14)
	Psychosomatic II	0.394	0.093	0.056(0.60)	0.037(0.40)
	Depression I	0.342	0.076	0.056(0.74)	0.020(0.26)
	Smoking	0.402	0.245	0.245(1.00)	- (0.00)



P-C relation: parent-child relation

<Figure 1> Path diagram for the influence of smoking on delinquent behavior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행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반사회적 성격 양상(직접효과: 0.310, 간접효과: 0.051, 총효과: 0.361)과 흡연(직접효과: 0.245, 간접효과: 0.000, 총효과: 0.245)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직접효과: 0.130, 간접효과: 0.00, 총효과: 0.130), 부모-자녀 관계(직접효과: 0.088, 간접효과: 0.018, 총효과: 0.106), 청소년의 연령(직접효과: 0.083, 간접효과: 0.023, 총효과: 0.106)도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흡연과 청소년의 성별은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가족원간의 관계(직접효과: 0.088, 간접효과: 0.018, 총효과: 0.106), 우울 성향 I(직접효과: 0.056, 간접효과: 0.020, 총효과: 0.076) 및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II(직접효과: 0.056, 간접효과: 0.037, 총효과: 0.093)등의 변수들은 비행행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매개변수 흡연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및 Figure 1 참조).

V. 논 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이 청소년기의 비행, 폭력행동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은 그간의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시사되어온 바 있다(Mailloux, 1997; Kim, 1998).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또한 흡연이 청소년 비행과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별로 논의 및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중인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흡연 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가정 역동적 환경이나 성격적 특성 또한 역기능적, 부적응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흡연이 청소년의 비행, 폭력 행동과 높은 상관 관계는 있으나 이들의 비행화 과정에는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 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족원의 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친의 사회활동 등과 같은 기타 가정 내 문제가 개인의 우울 성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욕구좌절 정도 등과 같은 성격 특성의 발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 그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청소년의 가족 관련 변수가 이에 대한 중요한 중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Brook, Whiteman, Balka, Win 과 Gursen(1997)의 주장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음주 및 흡연간의 연관성(Cohen & Rice, 1997), 가족 구조, 청소년 개인의 성격 특성과 음주, 흡연 및 불법약물 사용간의 관계(Griffin et al., 2000) 등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또한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 관련 성격특성으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이 흡연 및 알코올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우울 증은 행동장애와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Zoccolillo, 1992). 비행청소년의 우울증은 그들의 높은 흡연을 및 약물남용 정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Riggs, Baker, Mikulich, Young 과 Crowley(1995)의 연구에서도 행동장애나 약물남용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우울증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울증이 약물의존이나 약물남용의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흡연을, 흡연동기 및 금연시도 등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 보다 흡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연량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흡연이 유도 비행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유지, 무료해서, 니코틴 중독 증상으로 계속 흡연을 하게되거나 성인행동 모방으로 식사 후에는 외래에 흡연하는 반면, 학생청소년은 단지 스트레스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흡연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은 성인모방 지향적이며, 일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략이 역기능적이며 - 스트레스를 느낄 때 흡연, 음주나 약물남용을 하는 등 - 극적이며 탐미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보고(Oetting, Deffenbacher & Donnermeyer, 1998)와 비행청소년은 비교적 건설적이며 건전한 취미나 오락활동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연구(Kim, 1998)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판별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국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흡연, 음주나 약물 남용이 다양한 유형의 비행·범죄 행동이나 정신병리적 행동(Dawkins, 1997; Mailloux, 1997, 및 개인의 손상

적 체형(Crimmins, Cleary, Brownstein, Spunt & Warley, 2000)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는 금연교육이나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을 새삼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결과로 청소년 비행 관련 변수간의 경로분석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행행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흡연, 성별, 부모-자녀 관계 및 연령 등의 순으로 이러한 변수는 직·간접적으로 비행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또는 중요한 관련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 비행행동에는 흡연이 지대한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에는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양상과 같은 성격요인, 성별 요인,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등이 주요 관련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양상은 청소년의 흡연 및 비행행동에 가장 총효과가 높은 변수로 밝혀져 차후 청소년 비행 및 폭력행동 예방전략을 위해서는 흡연 및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분출구가 없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연구(Kim, 1998; Griffin et al., 2000)에서는 청소년기 비행행동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호발하였으며 시기적으로 15세 전후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만성 비행화 경로를 밟는 경우와 일회성 비행으로 그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요인이니 연령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도 남성청소년은 여성청소년 보다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비행행동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결과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별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흡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청소년의 흡연이 성별을 불문하고 만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할 수 있다. Griffin등(2000)은 또한 부모의 통제나 감독과 같은 양육변수가 여성청소년의 비행행동 보다 남성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하여 더 강한 통제력을 보였다고 기술하였는데 비행행동의 효과적 예방을 위하여 차후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비행관련 변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흡연 정도의 차이와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을 위해 학생청소년 1,164명, 비행청소년 784명 총 1,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을 내생변수(종속변수), 흡연을 매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정 역동적 환경(부친의 양육방식, 모친의 양육방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족원의 가정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친의 사회활동) 및 성격특성(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 성향, 사회성,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욕구충족/좌절 정도)을 외생변수(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보다 보다 역기능적 가정 역동적 환경과 부적응적 성격적 특성을 보였으며 흡연량 및 비행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다.
2.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흡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흡연이유에 있어서도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도함을 날대기 위해, 니코틴 중독증상으로 흡연하는 반면 학생청소년은 긴장감을 풀기 위해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금연시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청소년의 연령, 부모 지니관계, 반사회적 성격양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행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사회적 성격양상, 흡연,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련변수로는 흡연량, 흡연동기뿐 아니라 총 흡연기간이나 흡연시작 연령 등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차후의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2. 흡연과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한 청소년 성차 규명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

AAnglin, M., & Speckart, G. (1988). Narcotics

- use and crime: A multisample, multimethod analysis. *Criminology*, 26, 197-23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
- Barnes, G. M., Welte, J. W. (1986). Patterns and predictors of alcohol use among 7-12th grade students in New York state. *J Stud Alcohol*, 47, 53-62.
- Brook, J. S., Whiteman, M., Balka, E. B., Win, P. T., & Gursen, M. D. (1997). African-American and Puerto Rican drug use : a longitudinal stud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6(9), 1260-8.
- Cohen, D. A., & Rice, J.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academic achievement. *J Drug Educ*, 27(2), 199-211.
- Crimmins, S. M., Cleary, S. D., Brownstein, H. H., Spunt, B. J. & Warley, B. M. (2000). Trauma, drugs and violence among juvenile offenders. *J Psychoactive Drugs*, 32(1), 43-54.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 Consult Psychol*, 24(4), 349-354.
- Daykins, M. P. (1997). Drug use and violent crime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2(126), 395-405.
- Dembo, R., Williams, L., Wothke, W., Schmeidler, J., Getreu, A., Berry, E., & Wish, E. D. (1992). The generality of deviance: repl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among high risk youths. *J Res Crime Delinquency*, 29, 200-216.
- Elliott, D., Huizinga, D., & Menard, S. (1989). Multiple problem youth : Delinquency,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problems. New York : Springer-Verlag.
- Griffin, K. W., Botvin, G. I., Scheier, L. M., Diaz, T., & Miller, N. L.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 Behav*, 14(2), 174-184.
- Johnson, S. M., & Lobitz, G. K. (1974).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parents as related to observed child deviance and parenting behaviors. *J Abnorm Child Psychiatry*, 2, 192-207.
- Johnst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1993).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2. Vol 1: Secondary school studen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aplan, H. I., & Sadock, B. J. (1998). *Synopsis of Psychiatry : Adolescent Substance Abuse* (8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pp.1257-1260.
- Kaplan, H. I., Sadock, B. J., & Grebb, J. A. (1994). *Synopsis of Psychiatry* (7th ed.). Baltimore : Williams & Wilkins, pp.171-752.
- Kim, H. S. (1998). Discriminative Factor Analysis of Delinquent Behavior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3), 483-492.
- Kim, H. S., & Kim, H. S. (2000). *Questionnaire for Mental Health Status for Korean Adolescent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 Kim, H. S., Min, B. K., & Kim, H. S. (1992). Correlation between delinquent and their character pattern and family dynamics. *Ulsan Univ Med J*, 1(1), 188-205.
- Kim, H. S., Min, B. K., & Kim, H. S. (1996).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criminal pattern and family type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5(3), 574-593.
- Kosviner, A., Hawks, D., & Webb, M. G. T. (1973). Cannabis use amongst university students : Prevalence rate and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ho have tried cannabis

- and those who never tried it. *Br J Addiction*, 69, 35-60.
- Langer, T. S. (1962). A twenty-two item screening score of psychiatric symptoms indicating impairment. *J Health Hum Behav*, 3, 269-276.
- LeBlanc, M. (1992). Family dynamics, adolescent delinquency, and adult criminality. *Psychiatry*, 55, 336-353.
-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1994). *White paper for prevention of crimes*.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Yong-In, Korea, pp. 27-170.
- Mailloux, D. L., Forth, A. E., & Kroner, D. G. (1997). Psychopathy and substance use in adolescent male offenders. *Psychol Rep*, 81(2), 529-30.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New York : Harper & Low.
-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1996). *White paper for adolescents of Korea*. Policy section for youth,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Seoul, Korea. pp. 409-419.
- Moore, D. R., & Arther, J. L. (1989). Juvenile delinquency. In TH Ollendick & M Hersen(2nd eds.),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pp.197-198.
- Oetting, E. R., Deffenbacher, J. L., & Donnermeyer, J. F. (1998).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The role played by personal traits in the etiology of drug use and deviance II. *Subst Use Misuse*, 33(6), 1337-66.
- Quay, H. C. (1986). Conduct disorders. In H. C. Quay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3rd ed., pp.35-72). New York : Wiley.
- Riggs, P. D., Baker, S., Mikulich, S. K., Young, S. E., & Crowley, T. J. (1995). Depression in substance-dependent delinqu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4(6), 764-771.
- Slocum, W. & Stone, C. L. (1963). Family, culture, patterns, and delinquent-type behavior. *Marriage Fam Living*, 25, 202-208.
- Sontag, I. W (1950). The genetics of differences in psychosomatic patterns in childhood. *Am J Orthopsychiatry*, 20(3), 479-489.
- Smart, R. G., Adlaf, E. M. & Walsh, G. W. (1991). *The Ontario student drug use survey: Trends between 1977 and 1991*. Toronto,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 Tannenbaum, P. H. (1971). *Emotional arousal as a mediator of communication effects*. Technical reports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vol 8.
- Webb, J. A., Baer, P. E., McLaughlin, R. J., Mckelvey, R. S., & Caid, C. D. (1991b). Risk factors and their relation to initiation of alcohol use among early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0, 563-568.
- White, H. R. (1992). Early problem behavior and later drug problems. *J Res Crime Delinquency*, 29, 412-429.
- White, H., Pandina, R., & LaGrange, R. L. (1987). Longitudinal predictors of serious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715-740.
- Zoccolillo, M.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disorder and its adult outcome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 review.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 547-556.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2, 63-70.
- Zung, W. W. K. (1971).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371-379.

- Abstract -

The Influence of a Family Dynamic Environment, Personality, and Smoking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Kim, Hyun-Si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mportant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ex, age, the family environment, the personality of adolescents, smoking, and juvenile delinquency.

Methods: Data collection was done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948 adolescents delinquents : 784, students : 1,164 in Korea, using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chi-square, t-test and path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delinquent adolescents were reared in a more dysfunctional family environment, and had a higher maladaptive personality than the other student adolescents.
2. The delinquent adolescents showed the larger amount of smoking than the student adolescents. The cause of increased smoking tendency among delinquents simply were 'for social relation', 'for diversion', 'for nicotine addiction', whereas 'for tension relieving' among non-delinquent adolescents.
3. The most powerful contributors on delinquent behavior were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ies, smoking, sex, strength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 age of the adolescents in this order.

Conclusions: Our cross-sectional findings indicate that smoking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contributing variables to delinquent behavior, but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sex and age of adolescents were also proved to be strong exogenous variables to smoking in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Family Dynamic Environment, Personality, Smoking, Delinquent Behavio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fairs in Year 2000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san University